

# “깨어나라 나의 영혼아”

찬양 및 치유미사 천주교 필라델피아 한인성당에서 열려



천주교 필라델피아 한인 성당에서 열린 찬양 및 치유미사에서 찬양 봉사자들이 찬양을 이끌고 있다.

**【펜실베이니아】** 천주교 필라델피아 한인성당(주임 김순진 요셉 신부)은 지난 28일 “깨어나라 나의 영혼아”(시편 57:9) 주제로 찬양 및 치유미사를 가졌다. 이 미사에 300여 명의 신자가 참석했으며 정대영 모세 신부 (전 광주교구 성령 지도신부)와 김정경 실바노 신부 (미 동북부 성령쇄신 봉사회 지도신부)가 공동 집전했다.

본당 성령기도회(회장 신영민 스테파노)는 뉴저지 주 7개의 성당과 델라웨어 주 월빙톤 공동체등에서 참석한 성령기도회와 신자들을 위해 오후 3시부터 밤 11시 끝날 때까지 저녁식사 준비와 모든 예절과 일정을 정성껏 살폈다.

찬양, 미사, 안수 순서로 진행된 치유미사에 찬양팀 30명, 봉사자 20명이 참여했다. 미사에 앞서 기타와 한 몸이 된 정대영 신부는 찬양팀과 함께 1시간 동안 땀이 흠뻑 젖도록 주님에 대한 사랑을 높이 올려 찬양했고 회중의 신자들도 열정적으로 성령의 은총이 끝없이 내려와 상처 난 곳을 덮어 주고 치유해주시길 애타게 부르며 온 몸으로 성령의 불을 지폈다.

사무치게 그리워 울동으로 어깨를 들썩이고 발을 구르며 소리쳐 성령을 부르는 신자들과 찬양을 이끄는 여러 악기들이 제 각각 독특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어우러져 그 열기는 더욱 깊어졌다.

김정경 신부는 강론에서 “하느님은 내 삶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 삶을 완성시키는 존재다. 절망보다는 희망을, 포기보다는 인내와 절제로 언젠가 내게 다가올 그날까지 끊임 없이 기도하며 하느님께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필요한 은총은 무엇인지 생각할 것”을 주문했다.

미사 후 치유예절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와 은총을 흠뻑 주시고 계시는 성령께 온전히 자신을 맡겨 드리는 예식에 참여했다.

성 백삼위 성당 이인숙 세실리아는 “찬양을 통해 하느님의 참 사랑이 내 삶을 성장 시키고 축복으로 채워 주신다는 걸 매번 강하게 느끼고 있다. 그래서 가족과 함께 먼 길임에도 기쁘게 달려 왔다”고 말했다.

양경숙 명예기자